

2017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⑤	2	④	3	②	4	②	5	③
6	②	7	④	8	①	9	②	10	①
11	④	12	①	13	①	14	⑤	15	⑤
16	②	17	③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①	23	①	24	③	25	④
26	④	27	③	28	④	29	③	30	②
31	⑤	32	⑤	33	④	34	③	35	④
36	⑤	37	②	38	③	39	③	40	⑤
41	③	42	⑤	43	④	44	①	45	①

해설

1. [출제의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내용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학교 후문 근처 골목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범퇴 예방 디자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중들에게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자고 말하고 있지만, 책임감을 강조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이해한다.

발표에서 ○○구에 위치한 골목의 범퇴가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퇴 예방 디자인’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출제의도] 면접자의 질문 전략을 이해한다.

(나)의 면접자는 지원자가 창업을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지만 자신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완해 답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4. [출제의도]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파악한다.

[B]에서 지원자는 제과·제빵 동아리 활동과 창업 동아리 활동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면접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맥락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한다.

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질문에 지원자는 소비자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답변하였다. 면접자의 추가 질문 ②에 대해 지원자는 소비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②에 들어갈 추가 질문은 경제적인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라는 질문이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의 소재로부터 연상을 이끌어 낸 과정을 파악한다.

글쓴이는 노란 은행잎이 달린 시골의 은행나무를 보고 마을의 아이들이 은행잎들을 던지며 즐겁게 놀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7. [출제의도] 부적절한 표현을 고쳐 쓴다.

㉠의 앞부분은 은행의 고약한 냄새를 아예 없앤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암나무를 모두 수나무로 교체해 버렸다는 내용이다. 이 두 부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을 ‘없애기 위해’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그에 어울리는 목적어인 ‘자신들을’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이 글의 주제 및 전후 맥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앞에 있는 목

적어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가리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서슴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이 지역 신문에 기고하고자 쓴 초고의 [A]에서는 먼저 최근에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앞서 제시한 통학 버스 사고 관련 구체적인 사례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보완한다.

<보기>의 ㉠에는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초고의 2문단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법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내용을 생성한다.

<조건>에 따라, 몇몇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11. [출제의도] 주어의 형태와 기능을 이해한다.

㉠에서는 ‘신임’과 ‘장관’이 결합해 명사구를 이루고 여기에 조사가 붙어 주어가 이루어졌다. ㉡에서는 ‘새’와 ‘컴퓨터’가 결합해 명사구를 이루고 여기에 조사가 붙어 주어가 이루어졌다.

[오답풀이] ① 주어인 ‘나도’는 ‘대명사+조사’의 형태이고, 주어인 ‘바깥이’는 ‘명사+조사’의 형태이다. ② ‘도’와 ‘은’은 보조사로, 보조사가 붙은 형태로 주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③ ㉠에서 주어는 동작의 주체가 아니다. ⑤ ‘고물이’는 보어이다.

12.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와 발음을 파악한다.

‘밭은소리’는 용언 ‘밭다’의 활용형인 ‘밭은’과 명사인 ‘소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때 어미 ‘-은’이 형식 형태소이므로, ‘밭은’은 연음하여 [바튼]으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② 조사 ‘으로’는 형식 형태소이고, 어근 ‘알’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나트로], [나달]로 발음한다. ③ 어근 ‘어금니’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아버금니]로 발음한다. ④ 어근 ‘웃-’은 실질 형태소이고, 접사 ‘-음’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거두슴]으로 발음한다. ⑤ 조사 ‘을’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바틀]로 발음한다.

13. [출제의도] 이어진문장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와 (나)에서 앞 절과 뒤 절의 사건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다. 그런데 (나)의 앞 절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된 반면에 (가)의 앞 절에는 어간 ‘떡-’에 바로 어미 ‘-다가’가 결합하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의 앞 절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지만, 뒤 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과거로 해석된다. ③ (가)와 (나)의 앞 절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이지 않았다. ④ (나)에서는 찌개를 끓이는 행위가 끝나고 찌개를 식히는 행

위가 일어났으며, (나)에서는 종이를 접는 행위가 끝나고 종이를 주머니에 넣는 행위가 일어났다. ⑤ (라)에서는 두 사건의 인과 관계를 ‘-아서/-어서’가 나타내 주고 있지만, (다)에서는 두 사건이 인과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사동 표현의 특성을 이해한다.

단형 사동, 즉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장형 사동, 즉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보기>에서 ㉠은 단형 사동이고 ㉡은 장형 사동이므로 ㉠은 ㉡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린다.’가 된다. ㉠의 주어인 ‘팽이가’는 목적어인 ‘팽이를’로 바뀌었으며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꾸면 ‘선생님께서 지원이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가 된다. ㉠의 주어인 ‘지원이가’는 부사어인 ‘지원이에게’로 바뀌었으며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15세기 국어의 사동 표현과 현대 국어의 사동 표현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어근 형태가 ‘밭-’(15세기)과 ‘벗-’(현대)으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기-’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일-’이라는 동일한 어근에 대해 15세기 국어에서는 사동 접미사로 ‘-우-’가 결합되고 현대 국어에서는 ‘-리-’가 결합됨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일케’는 현대 국어의 ‘일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은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게 하다’가 쓰인 모습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③ 어근 ‘앉-’과 사동 접미사 ‘-히-’의 결합형에 대한 표기가 15세기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안치-’인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앉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사동 접미사 ‘-으-’가 15세기 국어에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21] (인문예술) 박영옥, ‘멜로폰티와 로댕’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예술사적 의미와 관련 있는 멜로폰티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감상자로 하여금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다. 시각적인 조각 작품을 대한 감상자가 거친 표면에 반응한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의 의미는 멜로폰티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멜로폰티는 몸에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는 세계의 의미는 그 속에 뿌리박고 사는 주체인 몸에 의해서만 길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몸의 경험을 ‘현상’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현상’은 우리가 흔히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객관과 수용자인 주관이 결합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상은 주체 없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멜로폰티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현상이다. 그에게 현상의 발생은 곧 ‘의미의 탄생’이다. 이는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이 주체의 지향성에 따라 다른 현상, 즉 다른 의미로 지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멜로폰티는 지각을 몸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현상적 장'인데, 현상적 장에서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메를로퐁티는 지각하는 주체는 세계에 참여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은 세계를 주체가 사유를 통해 이념적으로 구성한다고 보는 주지주의 철학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몸을 근원적인 것으로 내세운 데는 지성을 철학의 궁극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서양 철학의 전통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논지가 전개된 방식을 이해한다.

1문단에서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청동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표면이 거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표면의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조각을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의의는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메를로퐁티 철학의 주요 개념인 '몸', '현상', '지각', '세계에의 존재', '현상적 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 작품의 의의를 제시하며 그와 관련 있는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창작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③ 조각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조각과 연관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철학적 관점에서 조각의 예술사적 의미가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 않다. 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활용된 철학적 제재가 여러 예술 작품에 활용되어 온 양상을 밝히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견해를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메를로퐁티는 지각하는 주체가 세계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세계가 주체의 지각에 의해 창조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체인 몸은 세계 속에 존재하며, 지각으로 세계에 참여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따라서 주체의 '지각'이 세계를 창조해서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은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메를로퐁티는 현상은 주체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말한다. 지각하는 주체가 없다면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지각의 주체가 없는 소리는 현상이 아닌 것이다. ② 메를로퐁티는 모든 경험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④ 메를로퐁티는 다양한 감각이 소통되고 통일되는 것이 몸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⑤ 근대 서양 철학의 지적 전통에서는 지성을 중시하고 몸을 폄하한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몸을 주체로 내세워 지성보다 몸을 중시한다.

18.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자코메티의 작품은 두 개의 돌조각이 불안정하게 포개져 있는 작품이다. 이에 따라 위에 있는 돌조각에 의해 아래에 있는 돌조각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메를로퐁티는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이 있을 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래 돌조각에서 위의 돌조각에 의해 가려져 있는 부분도 지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각이 이루어지면 돌조각은 주체가 참여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주체와 함께 세계에 존재한다.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이루어졌을 때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각하는 주체가 참여한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의미가 탄생하는 순간은 곧 현상이 발생한 순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조각이 '초승달과

얇은 돌'이라는 의미로 지각이 된 순간은 곧 작품이 현상이 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메를로퐁티는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현상적 장'이며,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활동을 통해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지각은 몸이 주체가 되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품이 관람객에게 위태로움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지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지각은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놀이를 했던 추억을 떠올렸다면 관람객의 '몸'에 친구들과의 공놀이 체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A는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의 연주를 좋아해 그의 베이스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A가 베이스 연주 소리에 대한 '지향성'을 지녔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B는 공연에서 베이스 연주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B는 가수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베이스 연주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다. 즉 B는 베이스 연주 소리를 지향하지 않아 베이스 연주를 못 들은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수의 노랫소리에 대한 A와 B의 '지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현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②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 활동에 의존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즐겼다는 것은 지성에 의존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즐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메를로퐁티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A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좋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A가 가수의 노랫소리를 지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의 몸이 가수의 노랫소리라는 현상을 지각하는 주체로 기능했음을 나타낸다. ④ 베이스 연주 소리는 공연장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B에게도 베이스 연주 소리는 공연장에 실재하는 객관적 대상이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전체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토대가 되는 명제나 사실을 의미한다. ㉠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함을 통해 알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는 작품, 즉 몸의 총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품은 몸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작품과 몸이 분리되지 않아야 작품에 몸이 반응해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시각적 감각 기관의 활동은 몸의 총체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몸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적 감각 기관의 활동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한 몸의 구체적인 반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의 전제가 될 수 없다. ④ ㉠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어 몸의 총체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작품은 몸과 분리된다는 것이다. 지각 활동이 사유보다 앞서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을 논리적으로 성립하게 하는 토대가 되지 못한다. 즉 ㉠은 몸의 총체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의 진술은 시각 중심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⑤ 세계를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의 사유를 중시하는 것은 주지주의 철학이다. ㉠은 주지주의 철학과 대립적 입장에 있는 메를로퐁티 철학의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옳다고 인정함.'은 '수공'의 사전적 의미이다. '수용'은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수용'의 사전적 의미를 '옳다고 인정함.'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26] (고전시가) (가) 함복희, '텐동어미 화전기'의 서술 특성과 주제적 의미 / (나) 작자 미상, '텐동어미 화전기'

(가) 함복희, '텐동어미 화전기'의 서술 특성과 주제적 의미

이 글은 19세기 규방 가사 중 하나인 '화전기'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독특한 서사 구조를 지닌 '텐동어미 화전기'의 의미와 서술 특성, 의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전가는 개별 창작, 공동 창작이 모두 가능했으며 화전놀이의 전과 후에도 창작이 가능했다. 창작층과 향유층도 사대부 부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성별에 분포되어 있고, 그에 따른 화전가의 기능도 다양하다. 화전가는 그 구성이 대체로 일정하지만 구성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A]는 화전가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 주는 작품이며, '텐동어미 화전기'는 일반적인 화전가의 유형을 따르면서 놀이의 과정에서 텐동어미의 일생담이 길게 이어지는 액자식 구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나) 작자 미상, '텐동어미 화전기'

이 작품은 시작과 끝부분은 전형적인 화전가의 유형을 따르지만 중간에 텐동어미의 일생담이 끼어드는 액자식 구성을 보인다. 작품의 앞부분은 외부 이야기로 화전놀이의 권유와 준비, 참여, 화전놀이 장면 등이 펼쳐진다. 화전놀이 자리에서 청춘과부가 남편을 잃은 슬픔과 개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이어서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들려주는 내부 이야기가 전개된다. 임 이방의 딸로 태어난 텐동어미는 장 이방의 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그녀를 뛰다가 떨어져 죽어서 열일곱 살에 과부가 된다. 텐동어미는 상주 이승발의 후취로 개가하였지만 이포(史浦)로 인해 전 재산을 잃는다. 텐동어미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으지만, 괴질이 돌아 돈을 빌려 주었던 마을 사람들과 남편이 모두 죽게 된다. 텐동어미는 이후 도부 장사로 일하는 노총각 황 도령과 결혼하여 함께 장사를 하며 살아가지만 산사태로 황 도령이 죽는다. 다시 옛장수 조 침지와 살림을 차리나 남편은 옛을 고다가 불이 나서 타 죽고, 텐동어미는 태어서 불구가 된 아이인 텐동이를 업고 고향에 돌아온다. 청춘과부는 이러한 텐동어미의 이야기와 조언을 듣고 흥겹게 화전놀이에 끼어들게 되며 이 작품은 화전가 본래의 구조로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텐동어미를 통해 당시 서민 여성들이 겪었던 험겨운 삶의 일면과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화전가는 주로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하며 지었으나 남편이 지어 준 글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남성도 화전가의 창작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화전가는 삼월 삼진날, 청명절 등에 화전놀이를 하면서 지었으며, 일반적으로 화전놀이의 여러 과정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화전가는 대체로 인근 산천에서 봄을 즐기며 지은 것으로, 현장에서 창작하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구성상 특징을 파악한다.

[A]는 화전가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대목으로, 화전가 구성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A]의 '방춘삼월 ~ 춤을 춘다'는 (가)에 제시된 '봄의 찬미'와 관련되며 봄을 맞이하여 떠오르는 흥취를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갑자을축 ~ 합당하다’를 보면 여러 날 중에서 화전놀이를 행할 날을 택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㉔ 경비를 어떻게 거두기로 했는지 논의한 내용은 [A]에서 확인할 수 없다. ㉔ [A]는 화전놀이가 행해지기 이전의 내용이므로 화전놀이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24.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A]의 화자는 ㉑의 ‘피꼬리’를 보고 ‘벗을 찾아 날아’ 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㉑의 ‘피꼬리’는 화자에게 봄을 맞아 느끼는 즐거움과 흥취를 주는 소재이다. (나)의 ‘청춘과녀’는 꿈속에서 입을 보고자 하나 ㉑의 ‘피꼬리’ 소리로 인하여 입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저놈의 새’, ‘나와 백 년 원수’라고 하였다. 따라서 ㉑의 ‘피꼬리’는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한다.

[D]의 ‘청춘과녀’는 ‘화전놀음’에 참여하여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심일세’, ‘어찌할꼬’ 등과 같은 영탄적인 표현으로 남편과 사별한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D]에서 ‘청춘과녀’가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㉑ [B]에서 화자는 ‘답답하다’를 통해 입과 사별한 괴로움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㉒ [C]에서 화자는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이라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재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㉓ [C]에서 화자는 ‘꿈’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꿈에서나마 남편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㉔ [D]에서 화자는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나)의 ‘텐둥어미’가 ‘청춘과녀’에게 ‘신명 도망 못할 지라’라고 말한 것은 ‘신이 내린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상부와 개가를 반복한 텐둥어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견해로, 팔자나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경험에서 텐둥어미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㉑ (나)에서 ‘내척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것은 (가)에 제시된 풍월 놀이에 해당하므로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㉒ (나)에서 ‘청춘과녀’가 ‘한 부인’과의 대화에서 남편과 사별 후에 괴로움을 겪는 자신의 신세를 드러내는 것은 (가)에서 언급한 외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㉓ (나)에서 ‘텐둥어미’의 ‘내내 말을 들어 보소’ 뒤에 ‘나도 본다~’부터는 텐둥어미의 일생담이 전개된다. 따라서 (가)를 참고할 때 이 말을 표지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㉔ (나)에서 ‘화전놀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심회를 조금 풀까’하여 화전놀이에 참석했다는 ‘청춘과녀’의 말은 (가)에서 언급한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 31] (사회) 김준혁, ‘정당화적 의무 충돌과 면책적 의무 충돌’

의무 충돌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 의무는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 충돌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 상황은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삼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의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작위에 의해 법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부작위에 의해 법의 침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무 충돌은 긴급 피난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을 이해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법의 침해이다. 1문단에서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작위에 의한 법의 침해에 해당한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2문단에서는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작위 의무란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행위자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므로써 두 부작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9.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담당 의사가 만약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가 양심에 따라 어느 한 환자를 선택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위법성 조각설에서는 작위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설은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30.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의무 충돌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는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한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풀이] ㉑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㉒는 ‘몸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어 드러나지 않도록 하다.’의 뜻이다. ㉓는 ‘방향을 바꾸어 돌리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㉔는 ‘생각이나 기운 따위를 제대로 펴지 못하게 억누르다.’의 뜻이다. ㉕는 ‘어떤 의미를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㉖는 ‘무엇을 할 마음을 먹다.’의 뜻이다. ㉗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뜻이다. 반면 ㉘는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의 뜻이다.

[32 ~ 35] (기술) 정용택, ‘PID 제어 기술’

이 글은 기계나 설비에서 물리량을 제어하기 위해 쓰이는 제어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측정값을 설정값에 일치시키는 제어 기술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물의 온도를 맞추는 온도 조절 장치에는 흔히 ‘on/off 스위치 방식’이 쓰인다. on/off 스위치 방식은 측정값

이 설정값보다 낮으면 스위치가 on되고, 측정값이 설정값보다 높으면 스위치가 off된다. on/off 스위치 방식은 조작이 간단하지만 오버슈트와 헌팅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P 제어, I 제어, D 제어가 활용된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된다. P 제어는 설정값의 위아래에 비례대를 설정하여, 비례대 안에서 설정값과 측정값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P 제어를 활용하면 측정값을 설정값에 정밀하게 근접시킬 수 있다. 그러나 P 제어에서는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가 되어도 설정값의 위 또는 아래에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잔류편차라 한다. I 제어를 P 제어와 같이 활용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다. PI 제어의 적분 동작이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적분 동작의 강도는 적분 시간을 통해 조절한다. 그런데 P 제어나 PI 제어를 활용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이때 D 제어를 활용하면 측정값을 설정값으로 빠르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 PD 제어나 PID 제어의 미분 동작이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변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미분 동작의 세기는 미분 시간을 통해 조절한다.

32.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을 이해한다.

목적에 따라 P 제어가 단독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P 제어와 I 제어가 같이 쓰이는 PI 제어, P 제어가 D 제어와 같이 쓰이는 PD 제어가 활용되기도 한다.

33.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을 이해한다.

P 제어에서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가 되는 때는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게 이를 때로, 이때 스위치는 on과 off가 반복된다.

34.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증기압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비례대를 좁게 설정하면 잔류편차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없앨 수는 없다. P 제어를 할 때는 잔류편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35.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C]에서 PID 제어를 할 때,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측정값이 설정값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36 ~ 38] (현대소설) 송기원, ‘월행’

이 작품은 한국전쟁 당시 아내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일가친척들의 죽음을 초래했던 인물의 귀향을 다루고 있다.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못한 고향에서 아들을 대신해 속죄의 세월을 살아 온 ‘노인’은 ‘사내’가 고향에 돌아오자 아들이 사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그러나 이 소설은 고향이 ‘사내’의 귀향을 끝내 용납하지 않고, 그가 데리고 온 아이만을 받아 줌으로써, 전쟁이 남긴 한(恨)과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이 과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사내의 여정을 감싸 주고 있는 달빛은 서사를 이끌어 주는 중요한 소재이자 배경이 된다.

36.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와 행동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다.

‘사내’가 ‘몸을 돌려 비칠비칠’ 걷는 것은 고향이 자신의 귀향을 용납하지 않자 ‘사내’가 고향에서 다시 떠나가는 모습이다. ‘사내’는 ‘노인’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고 ‘노인’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㉔에 인물의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는 것이 나타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㉑ ‘가지라우’는 전쟁과 관련된 기억을 떠

오르게 하는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내'가 한 말이다. 따라서 ㉠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예?"는 살아 있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노인'의 말에 대한 '사내'의 놀라는 반응이다. 따라서 ㉠에는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말에 의아해 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는 '사내'의 모습은 폐병에 걸린 '사내'의 병증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은 인물의 병이 위중한 상태임을 감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백탁 같은 표정'과 '사내를 때치'는 모습은 '노인'이 '사내'를 냉정하게 떨쳐 내는 모습이다. 따라서 ㉢은 인물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노인'이 '사내'의 '자식 놈'을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용서와 화해의 과제가 당대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세대 간의 갈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심화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전쟁으로 인해 생긴 '민둥산'의 포탄 자국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는 고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사내'가 '고향에 뺨을 묻히고 싶다'고 한 것은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귀향을 완성하고 싶은 그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노인'이 '사내'에게 '죽게 되든 연락'하라고 한 것은 '사내'가 고향에서 이미 죽은 자로 치부되고 있기에 죽기 전에는 '사내'의 귀향이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사내'가 봉분들 앞에서 '노인'이 이끌어 준 대로 재배를 하고 무릎을 꿇은 것은 자신 때문에 희생된 원혼들의 한을 달래고 자신의 죄를 용서 받기 위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38. [출제의도] 핵심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C]에서는 '달이 졌다.'를 '보이지 않'게 된 '사내'의 상황과 조응시켜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 [A]에 '사내'가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B]에 '달빛'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는 인물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B]에는 인물이 지닌 소망이 나타나 있지 않다. ㉤ [B]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을 달빛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9~41] (현대시) (가)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나) 박남준, '아름다운 관계'

(가)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 작품은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화자가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눈', '흰 당나귀'를 통해 드러나는 흰색의 이미지는 순수함과 환상성을 동반하며 작품 전체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형성한다. '세상'을 거부하고 '마가리'를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속세와의 단절을 자처하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때 '눈'은 화자와 세상과의 단절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 박남준, '아름다운 관계'

이 작품은 '바위'와 '소나무'와의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바위' 위의 싱싱하게 솟아 있는 '소나무'를 보며, 그 까닭이 바위가 먼저 '틈'을 내어 '솔씨'를 품어 주고 몸을 비틀어 빗물을 받아내며 '소나무'로 키워낸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바위와 소나무'의 관계를 보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나)는 누군가에게 '몸의 한편'을 내고 품어줄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39. [출제의도] 작품 간 비교를 통해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2연에서 '뒤돌아본다'와 그 아래 시구부터 마지막까지의 구절 '산다는 일이 ~ 있었던가'까지가 도치되어 성찰과 반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 (가)는 '폭폭', '응양응양'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나)는 '바위'와 '소나무'를 의인화하여 '바위'가 '소나무'를 받아들이고 키워내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가)는 '폭폭 눈이 나린다', '눈은 폭폭 날리고'와 같이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나)는 '없었어', '말았어', '바위였지', '되었지', '안졌지', '틀렸지', '드리우고', '흐르게 하고', '들려주고'와 같이 '-어, -지, -고'와 같은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가)에서는 '흰', (나)에서는 '푸른'의 색깔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당나귀의 순수한 의미지, 소나무의 싱싱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40. [출제의도] 시상 전개 과정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는 1연과 2연에서 화자가 마주한 현실은 가난하고 고독한 자신의 처지이다. 이에 화자는 상상을 통해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나타샤'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된다. 따라서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2연에서 '생각한다' 이후에 제시된 내용은 '나타샤'와 함께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향하는 상상을 통해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1연에서 화자는 '바위'와 '소나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2연에서는 외부 세계로 향했던 화자가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전환하여 자기 응시를 통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풀이] ㉠ 2연에서 현실의 고독과 마주한 화자는 나타나와 함께 현실을 벗어나는 상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의 '생각한다'는 상상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된다. ㉡ (가)가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이 이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 이후의 내용은 화자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것이므로 애상적인 분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 ㉣ ㉠ 이후의 내용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나)에서 '소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며 생명력을 키워낸 것이 아니라, '바위'가 먼저 '틈'을 벌려 '솔씨'를 뿌리내리게 하고, '몸'을 틀어 '빗물'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으로 '소나무'를 키워낸 것이다. '바위'의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소나무'는 '푸른 그늘'을 드리우며 '바람'과 '새'를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요컨대 '소나무'의 생명의 원천은 '바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바위'와 '소나무'의 관계는 다시 '소나무'에서 '바람', '새'의 관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매개의 지점을 '강물 소리'와 '노랫소리'로 볼 수가 없다.

[오답풀이] ㉠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를 통해 화자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과 단절을 자처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마가리'는 이러한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 작품에서 '눈'은 '세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며 그 정서를 심화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눈'이 '폭폭' 쌓임에 따라 세계로부터 '나'가 자처한 고립은 심화되고, '나타샤'를 향하는 '나'의 몰입도 깊어진다.

[42~45]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정수정전'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여성 영웅 소설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남장을 하고 국가에 큰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른 주인공 정수정을 통해 가부장제가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대에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장군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당대 여성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4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장연은 자신의 첩을 죽인 일로 정수정을 조석정성에 만나도 외대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수정은 불쾌해 하기는 하지만 거리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연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낙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정수정은 자신을 초개같이 대하는 남편 장연을 혼내주기 위해 군령을 빙자하여 벌하고 있다. 따라서 ㉢에 나타난 장연의 태도는 남편을 부당하게 대하는 정수정에 대한 저항을 드러낸 것으로, 정수정에게 장수의 능력을 각인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을 방지하라 한 일들은 정수정이 청주에 돌아와 한 공적 업무들이다. ㉡ 마원의 외양을 범과 잔나비, 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용맹함을 부각하고 있다. ㉢ 황제가 '이제 국운이 불행하여 복적이 다시 일어나 여차여차하였다 하니 가장 위급한지라'라고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만조가 경을 천거하나 짐이 차마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함이니 경의 소견이 어떠하뇨?'라며 정수정에게 참전의 의향을 묻고 있다. ㉤ 정수정이 장연이 자신을 초개같이 여기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공주와 원 부인은 장연이 정수정의 시비를 죽이려 하자 이를 말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부장제의 균열과 관련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태부인은 정수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장연을 책망한다. 이를 통해 태부인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복적으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제신들은 전쟁에 나가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은 정수정밖에 없다고 그녀를 천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수정이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수정이 가정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인의 경부하는 도리가 없다고 책망한다. 이를 통해 장연은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수정의 행동을 억누르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수정이 평범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한자 성어를 통해 표현한다.

㉢에서 호왕은 자신의 병사들을 다 죽인 것에 대해 복수를 결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드러난 호왕의 심리는 '분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쌓음.'이라는 뜻의 '함분축원'이 적절하다.